

조선 시대 전기 음악

1392~15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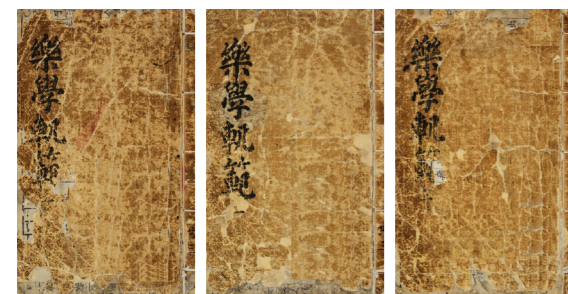
조선 시대 전기의 악곡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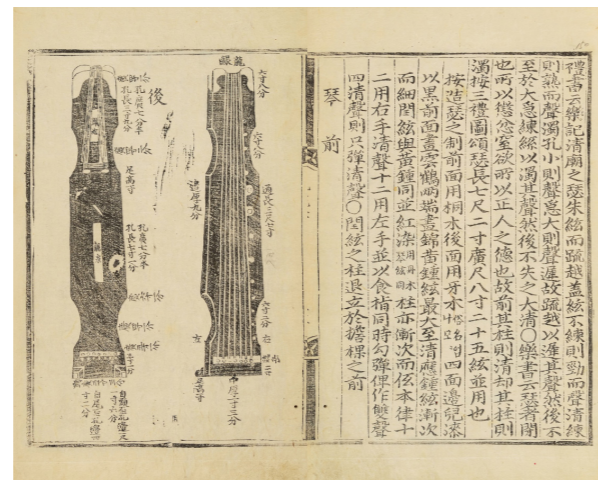
조선 시대 전기에는 '음악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예악 사상'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세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이 발전하였다.



- 세종** 세종 시대에는 박연을 중심으로 기본음을 내는 율관을 만들고, 편경을 비롯하여 여러 아악기를 제작하는 등 아악을 정비하였으며 맹사성을 중심으로 향악곡을 정비하였다. 또한, 보태평·정대업·여민락 등 새로운 악곡을 창작하고, 동양 최초로 음높이와 음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井間譜)를 창안하였다.
- 세조** 세조 시대에는 정간보를 개량하여 숫자 기보법인 오음약보를 창안하였으며, 세종 시대에 회례악으로 창작된 보태평과 정대업을 개정하여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하였다.
- 성종** 성종 시대에는 성현을 중심으로 음악 이론, 악기 설명, 음악 형식, 궁중 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이론서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악학궤범』



종묘제례악



「종묘제례악」은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에게 바치는 제사 의식인 종묘제례에서 연행되는 노래, 춤, 음악(악기 연주)으로 이루어진 종합 예술이다. 우리나라 중요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196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의식이 거행된다.

1 그림에서 종묘제례의 형태와 「종묘제례악」을 알아보자.

가(歌) 노래
노래를 '악장(樂章)'이라고 하며, 조선 역대 왕들의 문덕과 무공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다.

무(舞) 춤
춤을 '일무(佺舞)'라고 하며, '문무'와 '무무'를 춘다.

악(樂) 기악
땃돌을 중심으로 '등가(登歌)'와 '헌가(軒架)'로 나뉜 악단이 '보태평'과 '정대업'을 연주한다.

등가 땃돌 위에서 연주하는 악단
헌가 땃돌 아래에서 연주하는 악단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 중 제7폭 '오향친제반차도'

2 「종묘제례악」 중 보태평 '영신희문'을 감상해 보자.

♩. = 27

세 덕 계 아 후	世德啓我後	조상님 덕이 우리 후손을 열어 주시리
오 소 상 형 성	於昭想形聲	아아 그 모습과 베푸심을 생각하면 빛이 나타나이다
숙 속 천 명 인	肅肅薦明禋	삼가 깨끗한 제사를 올리오니
수 아 뇌 사 성	綏我糝思成	우리를 편하게 하시옵고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 희문 | 종묘제례 영신, 전폐, 초헌 의식 절차에서 연주된다. 가락은 같지만 연주 속도와 노랫말이 다르다.